

##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평

이 태 호\*

2000년대 이후 인문학의 제 분과학문을 비롯하여 디지털 매체과학분야에 이르기까지 기록의 문화사에 대한 관심을 연이은 연구성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구술성(orality)과 문자성(literacy)의 영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아울러 디지털 기록보존의 매체과학의 진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중앙중심의 정치경제사에 관한 기록의 사관과 지방사회의 개별적인 다양한 사건과 문화양상들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록자 중심의 사관이 투영된 기록보존과 아울러 문화생산자들의 시각과 세계관이 반영된 기록행위가 기록학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마을민속조사·보고·전승·연구·비교·자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연속적인 연구성과에 이어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마을민속자료의 지속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의 방향설정과 사례분석 연구논문집인 점에서 기록연구사적 의의가 주목된다.

본 논문집은 모두 6편의 논문을 엮어 구성하였다. 함한희의 「민속지식의 생산과 공공성의 문제」, 김주관의 「민속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허용호의 「민속자료의 축적과 활용방안」, 김시덕의 「민속아카이

---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수료.

브 구축」, 이상현의 「독일 마을민속아카이브의 역사와 특징」, 주종택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민속자료의 보존과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한희의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지식민주주의를 위한 민속지식의 공공성 확보와 확산의 견지에서 마을민속 아카이브의 구축 방법, 민속지식의 공공성의 문제, 민속지식의 매체별 차이와 다양성 등을 논하면서 종국적으로 민속지식을 현대의 정보과학기술로 분석함으로써 아카이브의 의미와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관이나 개인들이 아카이브를 만들어 두는 이유는 ‘역사와 전통의 중요성’과 ‘사실 또는 진실의 공개’ 그리고 ‘정보공유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식의 범위는 일차적으로는 무형이지만, 유형의 유산들 속에 들어있기에 문화현상으로서의 ‘민속’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나아가 민속지식의 지역성(locality, local knowledge)에 바탕을 두고 집단에서 개인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아카이브로, 문자에서 소리와 이미지까지 포함하는 민속지식의 아카이브 구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김주관의 논문에서는 민속자료를 어떻게 현대적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민속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가능성을 엮어내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몇 가지 선행요건으로 자료형식의 표준화,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나아가 아카이브구축 이전에 분류체계의 표준화, 메타데이터 입력·편집기의 개발, 사용자 친화적인 UI의 개발, 계층적 데이터 저장관리를 위한 설계, 자료의 입수 방법, 저작권의 해결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민속자료의 기록을 민속 전승의 주체(folks)에게 맡기는 것과 지역에서 민속과 관련된 연구자 자료수집을 하는 사람들도 민속자료 수집과 기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왕의 민속연구자 중심의 자료수집과 기록의 흐름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안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후 4편의 논문들은 민속자료의 수집과 기록 및 활용의 사례들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허용호의 논문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고려대학교 전자문화지도연구팀에서 추진했던 전자문화지도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사례와 연구자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필자는 먼저 전자문화지도와 ‘전자문화지도’에 대한 인식, 그 구현 방법, 정보 제공정도, 정보의 시점, 제작목적, 사용자의 능동성 여부 등의 인식에 관한 개념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인식의 측면에서 방대한 문화정보를 시간·공간·주제의 입체적 구조로 조직한 거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구현방법으로 특정 문화현상의 공간적 정보와 시간적 추이를 표현함으로써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도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간적 추이를 기저에 깔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적 학술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검색 조건을 지정할 수 있어 수많은 조합과 표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자문화지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시덕의 논문에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 아카이브 구축을 사례를 바탕으로 특히 아카이브구축의 허브역할을 담당했던 박물관에서의 더욱 심화되고 전문화된 아카이브구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연구의 성과가 주목된다.

필자는 Richard Dorson이 제시한 ‘민속아카이브란 민속관련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민속과 관련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 평가, 분류, 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아카이브가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자료 중심으로 한다’는 시각을 뛰어넘어 문화콘텐츠 원천소재의 보고로서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활동임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두 연구가 국내의 민속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례연구인 반면, 국외 아카이브 구축 사례연구를 이상현과 주종택의 논문에서 볼 수 있

다.

먼저, 이상현은 민속아카이브구축의 역사가 독일민속학의 연구대상인 구비문학과 물질 및 신앙생활과 관련된 독일 민속학 관련 연구소의 아카이브의 역사와 상관되어 있음을 논술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의 국가적 아카이브와 차별성을 둔 독일 마을민속 아카이브에 있어서는 독일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을과 주민’에 대한 기록으로 신화, 설화 및 마을의 축제와 세시풍속, 물질생활에 초점을 두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부터 그 역사적 출발을 논하고 있다.

독일의 마을민속 아카이브 구축대상으로 독일민요와 설화를 포함한 구비문학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독일 민속지도로 제작하고 또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활용한 영상민속 아카이브 구축은 ‘일상적 이야기 아카이브’, ‘신문아카이브’, ‘사진아카이브’ 등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아카이브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한국과 독일의 역사와 문화적 유사성과 상이성을 감안한 연구가 되어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민속자료 보존과 활용을 연구한 주종택의 논문은 다양한 민족과 부족으로 구성된 미국사회에서의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의 사례로서, 한국적 민족국가의 민속생활자료를 바탕으로 한 마을민속 아카이브 구축에서 특히 인류학적 시각과 민속학적 시각의 비교검토가 선행과제임을 역설하고 있겠다.

이는 마을민속을 접근하는 제 학문분과의 다양한 시각과 방법에 대한 공동의 논의가 바탕이 된 마을민속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민속생활과 문화유산센터의 자료에서는 스미소니언 민속생활축제, 스미소니언 민속 녹음자료, 전시, 기록영화와 비디오, 심포지움, 교육자료를 ‘공공 지식의 민주성’ 측면에서 민속아카이브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9년 1월 29일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가, 2012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국가적으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아카이빙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은 그 성격상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본 연구에서 쟁점으로 하는 마을민속에 관한 기록물 및 민간부문에서의 기록물에 대한 부분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한 지역의 민속은 국가의 역사와 행정·제도 등 제 문화적 요소들과의 상관성 아래 형성, 지속과 변화를 거듭하여 그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어 가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염두한다면, 민속학에서 수집·연구·보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구비문학, 세시풍속, 사회생활, 물질생활 등의 마을민속자료와 함께 상호비교하면서 마을민속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민속지식의 공공성과 민주성’ 및 학문적 연구와 마을민속의 보존과 활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